

## 행복한 금요 편지

#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게 한 선배님께

조주행<sup>1)</sup>

전 중화고등학교 교장

퇴임교원들의 모임에 나가 오래간만에 선배님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더니, 퇴임한지 10 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배님의 열정에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퇴약별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서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뵙고 선배님들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교직에 입직하는 초임교사들은 자부심과 사명감 그리고 열정이 뜨거워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직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교직자의 양심을 지키려는 젊은이다운 패기가 넘치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부디 그들의 초심이 변치 않고 이어져 학교현장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그랬듯이 그 사명감과 열기가 오래가지 못하여 곧 식어지고 자포자기 상태로 좌절에 빠져 그저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만족하고 말았던 우리의 아픈 전철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 조주행 전 중화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서울교육삼락회 이사과 서울평생교육동지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행정이론(인간사랑), 공부는 암기력(지상사) 등이 있습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이후 학교현장의 사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선택한 교육감 직선제는 오히려 학생인권보호, 학생회, 교무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심지어 선거연령 인하 등의 시책으로 학교현장을 정치 투쟁화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고향이자 주요 지지기반인 특정 정당 및 NGO들과 연합하여 편파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기존의 전통적 교육제도의 틀을 자기들의 구미대로 새로이 재편성하여 학교현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의 지출은 단위학교 교육활동의 우선적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에 충당하여 학교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국가가 보조하는 누리예산마저 편성을 거부하고 정치이슈화하면서 어린 유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을 원하는 학교공동체의 바람과 달리 거액의 운영보조비를 조건으로 놀이 중심의 대안학교 형태의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개인의 구상에 따라 오딧세이 학교를 만들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NGO들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부실과 관리 소홀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 후에는 정상 교육과정으로의 연계가 어렵고,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이 좌절되고 있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을 정치기반화 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시는 선배님들을 뵈 때마다 사람을 왜 '호모 라보르 (Homo Labor)' 즉 일하는 존재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삶을 위한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다 일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고 당당한 일에서 즐거움이 온다고 합니다. 나와 가족, 나와 이웃이 일치되어 서로 돕는 일상의 삶은 항상 즐겁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연속되는 상태가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행복을 보장해줄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살 뿐이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 드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령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나만이 겪는 고통인 양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설령 그 조건이 역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척, 불평 없이 넘기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고, 이 일상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의료센터가 평균 나이 82세의 노인 7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단한 가사 일만으로도 노인들의 치매(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1/2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3이 치매로 사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집밖에서 하는 일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얻는 데는 오히려 가정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장이 먼저 자진하여 집안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정원수를 다듬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요리를 하고, 식사 후 설거지까지 한다면,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패기만으로 품어보던 젊은 날의 포부도,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더 많은 것에 대한 미련도 모두 없어진 삶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최상이라 여기며,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구속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한 순간, 한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별스럽지도 않은 일상이 바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했습니다. 선배님들이 한평생을 바쳐 꿈꾸어 오셨던 교육입국의 이상이 곧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번 모임에서는 꼭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